

인도네시아, 팜오일 수출관세 인하

5월부터 5% 인하 15%로 조정 ... 팜오일 가격 1158달러로 하락

국제시장에서 팜오일 가격이 내려 인도네시아 정부가 5월부터 팜오일 수출관세를 15%로 인하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마리 엘카 뽕에스뚜 상무장관은 “국제시장에서 팜오일 가격이 톤당 1158달러로 내림에 따라 5월부터 팜오일 수출관세를 5% 인하해 15%로 조정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인도네시아 정부는 3월 팜오일 가격이 평균 톤당 1200달러, 최고 1395달러까지 치솟자 내수공급 안정을 위해 4월에 수출관세를 20%로 인상했다.

인도네시아는 팜오일 수출관세를 전월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다.

상무장관령에 따라 팜오일 평균가격이 1100-1200달러 수준이면 수출관세가 15%, 1200-1300달러이면 20%, 그리고 1300달러 이상이면 30%를 부과한다.

인도네시아 중앙통계청에 따르면 팜오일과 유도제품 수출액이 2008년 1월 16억달러에서 2월에는 10억달러로 34.85% 감소했다.

하지만,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는 2008년 팜오일 수출액이 27%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.

협회는 2008년 인도네시아 팜오일 생산량은 1830만톤으로 400만톤을 국내에서 식용유 원료로 소비하고, 30만톤을 바이오연료 생산에 사용하며, 나머지 1400만톤을 수출할 것으로 추산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 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8/04/29>